

광주 도심 숲 날아든 철새들 ‘어찌할꼬’

광천초교 인근 녹지 백로·왜가리 수백마리 등지

여름철 배설물 악취·새 울음 소리에 주민들 고통 호소

구청 관계자 “무조건 내쫓는 것보다 공존 대책 마련해야”

광주 도심 속 녹지공간에 매년 철새가 등지를 틀면서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23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백로 등 철새가 서구 광천초등학교 인근 폐수목원에 등지를 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께. 해마다 여름철이면 백로, 왜가리 등 200여마리의 철새가 학교와 주택가로 둘러싸

인 조그마한 숲을 가득 매웠다. 첫해에는 주민들과 학생들은 새들이 날아와 터를 잡는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생경한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철새가 쏟아내는 배설물과 어미 새, 새끼 새의 울음소리, 깃털 날림 등은 생활과 수업에 불편을 줬다.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에 서구청은 방역을 하기도 했지만, 서식지를 철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서식지가 사유지라 마음대로 숲을 철거할 수도 없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향나무를 절단해 철새를 쫓아보려 시도했지만, 올해엔 철새들이 그 옆 숲으로 서식지를 옮겨 주민과 학생 불편은 여전했다. 서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광천초교 학생사랑어머니회, 인근지역 아동센터, 서구지역대 상근병 10명 등과

함께 나뭇가지를 치고, 분비물과 썩은 물고기 등을 치웠다. 이들은 지난 19일 하루 동안 나뭇가지 20여과 쓰레기봉투 9천 6분량의 분비물 등 쓰레기를 치웠다. 서구는 여름 철새가 날아간 오는 10월 이후 광주시에 예산지원을 요청,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향나무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근에 광천이 있어서 철새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며 “무조건 내쫓는 것보다 철새도 살고 사람도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북구 일곡동 한새봉 관동도로 백지화하라”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은 최근 시민들과 함께 북구 일곡동 한새봉 개구리 논에서 모내기를 한 뒤 ‘한새봉 관동도로 백지화’ 선언식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광주시가 2년 전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새봉 관동도로를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잘 가꾼 자연유산 파괴 안된다

특별기고



박경희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는 한새봉이 있다. 한새봉은 무등산에서 이어져 군왕봉과 매곡산을 잇는 광주 북부권의 중요한 녹색 축으로 하루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이다.

또한, 2007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동경작을 하고 있는 개구리 논이 있어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으로 모를 심고, 수확하며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자연생태학습장이자 도롱뇽, 개구리 등 동식물의 서식 공간이기도 한 개구리 논은 생태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에 한국 내셔널트러스트로부터 ‘잘 가꾼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제 한새봉과 개구리 논은 일곡동 주민공동체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광주시 역시 이러한 한새봉의 가치를 인정했기에 2013년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 계획을 백지화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4월 광주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를 놓겠다고 해서 말썽이 되고 있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광주북부순환도로는 문흥동 동동고개에서 일곡동, 양산동, 첨단을 잇는 고속화도로로, 2007년 계획 초기부터 도로개설 목적인 도로혼잡 개선효과가 부족하다는 국회에 산정책의 의견이 있었던 사업이다.

또한, 주민피해와 환경훼손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오랫동안 노선을 변경하거나 백지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런 과정에서 2013년 6월 광주시는 우회도로를 검토해보겠다고

사실상 한새봉 관동도로 계획을 백지화하였고, ‘일곡~용전~지산초교~본촌~첨단’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 안(案)으로 주민설명회까지 한 바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의 협의과정과 약속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를 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민들은 광주시가 약속을 파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어떠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

한새봉에는 현재 17억9000만원을 투입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도시농업생태공원이 조성중에 있다.

한쪽에서는 한새봉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를 놓겠다는 뜻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에서 녹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2~3분의 속도가 가져오는 경제성과 푸른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이 두 가지 중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

영산강환경청 - 한국수자원공사

동부권 상수원 수어호 수질보전 협약 체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동부권 주요 상수원인 수어호 수질보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친환경관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 40만명의 주민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수어호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법경작, 무단 점·이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관은 정화활동, 캠페인, 현지조사, 단속 등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수질개선 사업의 주민 공감대 확산,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고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설명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 주안호보전협의회와 함께 광주 주요 상수원인 주안호 상류 친환경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 상류지역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상수원인 만큼 지역민 모두가 상수원 지킴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정수장 조류 증가 원인 효과적 대처 가능

환경과학원, 물 맛·냄새 실시간 분석 검출 시스템 개발

물의 맛과 냄새를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에서 조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수장에서 물에서 나는 맛과 냄새 물질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자동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해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이나 2-MIB 등을 완벽히 처리하지 못했던 일반 정수처리시설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분석시스템은

수동으로, 하루 1~2회 분석에 야간 분석은 힘들었다. 새 시스템은 하루 30~50회 물 성분을 실시간 자동 분석해 조류가 증가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과학원은 오는 8~10월에 정수장 한 곳을 선정해 새 시스템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상수도 연구과 과장은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과 조류 대응 책자가 정수장에서 조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요양(병)원,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연수원, 최적지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 1분거리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요양(병)원, 연수원, 별장, 수련원, 종교시설,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야외 결혼식장 등등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공동투자하여 운영 하실 분 환영!

■ 주인직매 H. 010-3605-5000

